

## 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### 유럽, 다각적인 금융시장 안정화 시도

- 유로지역 금융시장의 불안이 아일랜드 구제금융 지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쉽게 진정되지 않음에 따라 유럽중앙은행과 유로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해결책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.
  - 850억 유로에 달하는 아일랜드 구제금융 지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주변부 국가의 자금조달 비용 급등, 투자심리 경색, 유로화 약세 등 유로지역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.
  - 이에 따라 금융시장의 불안을 조속히 진정시키기 위해 정치적·법적인 난관으로 인해 그간 고려되지 못했던 방안도 강구되는 상황임.
- 파이낸셜타임즈는 금융시장의 불안을 진정시키는 방안으로 부실국채매입, 구제기금 확대, 유로공동채권발행, 재정정책 결합(union) 등이 고려되고 있다고 밝힘.
  - 유럽중앙은행의 부실국채 매입은 그리스 재정위기 당시 적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현실화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짐.
    - 이를 위해 도덕적 위해와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독일에 대한 설득이 필요함.
  - 주변부국가들을 전부 구제하기 위해 1,400억 유로의 기금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을 고려하면 구제금융기금이 확대될 경우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 가능성이 크나 한편으로는 스페인의 구제금융 임박이라는 시그널로 작용하여 역효과가 발생할 우려도 예상됨.
  - 유럽공동채권발행은 주변부국가들의 자금조달 비용을 하락시키고, 경제공동체의 결속력을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이나,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독일·프랑스 등 유럽선진국들은 채권발행에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.
  - 유로지역의 재정정책 결합은 재정적자 축소와 조세확대에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으나 각국의 예산·지출 심의권 포기라는 정치적 결단까지 많은 난관이 예상됨.
  - 최종적으로 유럽경제공동체 해체가 고려될 수 있으나 이는 각국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 금융시장의 안정화에 보탬이 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됨.

(Financial Times 12/1)